

하향식 접근법을 통한 다독의 통합적 전략 연구*

신 규 철

단독 / 극동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언어습득 관점에서 다독의 하향식 접근법을 중심으로 통합적 전략을 고찰하고 연구사례들을 분석하여, 영어교육에 끼치는 의의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읽기법인 상향식 읽기의 정독(intensive reading)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적 능력 제고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언어적 측면을 통합시키는 하향식 읽기법인 자발적 다독법(extensive reading)의 연구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고,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 다독법은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교육 환경의 문제점인 목표어에 대한 언어노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어의 최대한 노출을 통한 의미중심의 언어교육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발적 다독법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을 함양하여, 언어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동시에 제고시키고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과 언어의 유창성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다독을 통한 하향식 접근법이 인지적 측면에서 통합적 학습 전략으로서 우리의 학습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이 연구는 2023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FEU2023R09).

주제어: 다독, 인지적 측면, 자발적다독법, 상향식접근법, 하향식접근법

1. 들어가는 글

제2 언어교육에서, 읽기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었다. 많은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제 2 언어 학습자들의 읽기교육 향상 방안을 위해,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를 거치며, 오늘날의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오고 있다.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교육환경(EFL)은 학습자들에게 목표어(target language)에 대한 제한된 노출로 인하여, 언어습득 측면에서 읽기자료를 통한 목표어의 최대한의 노출이 언어습득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특히, EFL 상황에서는 언어의 4가지 기술 중에서, 읽기가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접하기 쉬운 노출의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읽기를 통한 언어기술의 통합이 외국어 읽기의 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고 외국어 읽기교육에서 읽기를 통한 통합적 접근법은 현대 외국어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외국어 읽기교육에 있어서,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언어 습득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추구하는 자발적 다독의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여, 영어교육적 의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의 의사소통 목적과 유창성 증진 방안으로, 자발적 다독법을 영어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은 언어습득의 보편성의 원리에 기인한 것으로, 모국어 습득의 원리와 외국어 습득의 원리가 같다는 언어습득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2.1 언어의 보편성과 모국어와 제2 언어 읽기의 관계

인간의 언어는 수많은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언어마다 언어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언어학자들이 말하듯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우리 두뇌에 있는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모든 언어들의 이해과정과 처리과정이 유사한 언어습득 원리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국어의 습득과정을 이해하면, 제2 언어의 습득과정도 동일한 처리과정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의 4가지 기술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중에서, 읽기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읽기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과 언어 정보들이 우리들의 두뇌에 저장되고 입력됨으로써, 언어습득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읽기는 언어습득의 보편성으로, 그러한 언어정보 처리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제2 언어 습득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한편, 현대 언어학자들은 제2 언어 교육에 있어서,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관계를 집중 조명해 오고 있다. 쿠민스(James Cummins)의 ‘상호의존가설’(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is)에 따르면, 모국어와 제 2언어의 발전은 상호의존적이지만, 모국어의 발전이 제 2언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223). 그리고, 스팍스, 간쇼우, 폴만(Sparks, Ganschow, & Pohlman 1989)은 ‘코딩차이가설’(linguistic coding differences hypothesis)을 통해, 모국어 읽기에 문제가 있는 학습자들은 제2 언어에 읽기에도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고 한다. 이것은 언어의 읽기 이해과정이 모국어와 제2 언어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이해는 문자의 통사적이며 의미적 시스템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2 언어 읽기에 대한 상호 접근법』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에서는 인식(recognition-initiation), 예측(prediction), 확인

(confirmation), 수정(correction), 종료(termination)의 5가지 읽기 과정을 심리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제2 언어 읽기의 문제에 관련한 연구를 모국어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자들도 있다. 간쇼와 스팅스(Ganschow & Sparks)나, 스팅스, 패튼, 간쇼우, 훔바크, 자보스키(Sparks, Patton, Ganschow, Humbach, & Javorsky) 같은 연구가들은 제2 언어의 읽기 문제점으로, 모국어의 음운론적 인식부족과 통사적, 의미적 기술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스완슨, 사에즈, 거버, 리프스테트(Swanson, Saez, Gerber, & Leafstedt)는 모국어의 음운론적 기억 기술부족이 제2 언어 읽기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한다. 게다가, 반 데르 레이즈와 모피디(van der Leij & Morfidi 2006, 180)는 모국어 읽기에 문제가 있는 학습자는 제2 언어의 빠르게 읽기(speed reading)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단어 인식(word recognition)과 자동성(autonomy)에 관하여, 모국어 읽기의 문제가 제2 언어의 단어 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Da Fontoura & Siegel 1995). 그들은 단어 인식과 자동성(autonomy) 계발은 제2 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성과 관련하여, 40명의 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융합학습(blended learning)과 다독교육 모델이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자의 단어 인식과 자동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Chanthap & Wasanasomsithi 2019, 76-96).

한편, 국내에서는 마송희(2013, 183-206)가 모국어 음운인식 능력과 제2 언어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증명했으며,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라임(rhyme)을 활용한 음운인식이 제2 언어 읽기 능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하였다. 이것은 영어의 운율적 요소를 활성화 시키는 수단으로, 모국어의 라임을 활용한 읽기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증열과 이강은(2004, 145-57)은 초등학생의 한국어 음운처리 기술이 영어 읽기와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모국어의 소리내어 읽기 과정에서, 음운처리기술이 영어의 읽기능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배은실과 맹은경(2012)은 중학교 학습자들의 모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전략 및 읽기능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모국어와 제2 언어의 읽기전략

이 상호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언어 간의 읽기전략이 상호 간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모국어의 읽기전략도 발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2. 상향식 읽기와 하향식 읽기의 통합적 모색

2.2.1. 상향식 읽기 접근법

읽기의 소통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현대 언어교육의 읽기는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러한 소통은 읽기의 접근법에 따라,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읽어가는 상향식 접근법과, 큰 단위로부터 작은 단위로 읽어가는 하향식 접근법이 있다. 모국어의 읽기방법은 대개 내용중심으로 큰 단위로부터 읽어가는 하향식 읽기를 추구하는 반면, 외국어 읽기는 전통적으로 단어 > 구 > 문장 > 단락 등의 순서로 읽어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추구하여 왔다. 이렇게 다른 접근법은 결국, 외국어 습득능력이 모국어 습득능력과 대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언어습득의 보편성에 비추어 보면, 외국어습득의 접근법도 모국어습득의 접근법처럼, 하향식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놓이게 된다.

제 2언어의 읽기는 읽는 방법에 따라, 정독과 다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읽기인 정독은 교사의 세밀한 안내 하에, 짧고 어려운 텍스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한 짧고 어려운 글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단어들과 관용적 표현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강의와 직접적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의 수업목표는 학생들이 어휘나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문장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휘나 문법 지식으로 여러 종류의 연습문제들을 올바르게 푸는 것이 읽기의 목표였다. 이러한 읽기방법을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이라고 한다. 이 읽기 방법은 특히,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전통적인 평가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상향식 읽기기술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결과, 학생들은 문장들을 해독하는 기술(decoding skill)을 터득하는 것이 읽기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러한 읽기 환경 아래에서, 학생들은 텍스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 주의 깊게 모든 단어들을 읽어야 하는 습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향식 읽기는 전통적인 읽기과정으로, 읽기연구가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인식된 이래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읽기는 텍스트의 작은 단위로부터, 보다 큰 단위로 읽는 것을 말한다(Carrell 1988b). 이러한 상향식 읽기는 문자들을 인식하고 문자들의 조합을 이해한 다음, 그 단어들로부터 의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각 단어들의 의미를 모아서, 구(phrase)나 절(clause)의 의미를 만들고, 구나 절의 의미를 포함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문장의 의미는 보다 작은 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적 지식이다. 한편, 브라운(Brown 2007)에 따르면, 상향식 처리과정은 문자(letter), 형태소(morpheme), 음절, 단어(word), 구, 문법적 단서(grammatical cue), 담화 표시(discourse marker)와 같은 언어적 요소를 먼저 학습하고, 두뇌의 처리과정 속에서 읽기를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보트(Abbott 2010)는 제2 언어 읽기 전략에서, 상향식 전략은 데이터 중심(data-driven)인 반면에, 하향식 읽기전략은 개념-중심(conceptually-driven) 이라고 말하고 있다.

2.2.2 하향식 읽기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은 심리언어학에서 나타난 접근법이다(Frehan 1999). 하향식 접근법이 상향식 접근법과 다른 근본적 차이는 텍스트의 모든 정보를 다 읽지 않고, 읽기목적에 맞게, 텍스트의 일부를 골라서, 의미를 예측(prediction)하고, 독자들의 배경지식과 연계하여, 예측한 의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Carrel 1988a). 이러한 읽기는 텍스트의 정보와 독자들의 사전 지식을 통합해 주는 보다 높은 단계의 읽기기술이다(Anderson 1999). 이러한 하향식 읽기전략은 스키마(schema) 개념과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Brown 2007)은 하향식 접근법이 학습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텍스트를 해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향식 읽기는 모국어 습득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읽기와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문법이나 개별적인 단어 암기에 의존하는 읽기가 아니라, 배경 지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 방법이다. 이것은 모국어 습득원리와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면에서, 상향식 접근법보다 언어습득의 보편성의 원리를 반영하여, 보다 타당한 읽기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2.2.3. 상호적 읽기 접근법

상호적 읽기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조합을 이루는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정보를 주로 많이 필요로 할 때,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집중할 때,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Carrell 1988b). 언어적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읽기를 해독(decoding)하는 기술과 의미를 해석(interpretation)하는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 되는 게 좋다. 그러나,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 중, 어느 접근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뱌포드와 데이(Bamford & Day 1988)는 지금까지 4가지 흐름을 문법-번역(grammar translation), 이해-질문(comprehension-question), 기술과 전략(skills and strategies), 다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과 전략’ 접근법이 상호적 읽기에 가장 어울리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문법-번역 접근법은 읽기의 상향식 접근법과 매우 밀접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문장 단위의 구문 분석에서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해 질문 언어연습’은 교사가 단어별로 가르치는 교육과 학습자가 짧은 텍스트를 학습하는 형태를 취한다. 모르는 단어들을 수업에서 강조하며,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문제에 대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습문제들을 문법과 어휘설명을 통해, 교

사가 설명을 한다. 이것은 일종의 문법-번역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전략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의 하나로, 학습자에게 읽기문제에 대한 답을 푸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스키마를 필요로 한다. 학습자는 그룹별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도 하며, 텍스트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과업(task)을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끝으로, ‘다독’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흥미 있는 분야의 텍스트를 즐기며,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읽기법이다. 다독은 학습자들에게 문맥에 맞는 어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크라센(Krashen 1977)에 의하면, 읽기는 언어능력 향상에 중요하며,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독은 매우 능률적인 언어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에스키와 그라베(Eskey & Grabe 1988)는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가 읽기기술은 상호적으로 이용하여,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그라베(Grabe 2004)는 통합된 읽기 접근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읽기 요소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어휘 인식, (2) 어휘 학습, (3) 배경지식 활용, (4) 언어지식과 이해력 기술(comprehension skills), (5) 텍스트 구조와 담화구성(discourse organization), (6) 전략적 읽기, (7) 읽기유창성과 속도, (8) 다독, (9) 내면적 동기, (10) 일관된 교육과정. 그라베(Grabe 2004)의 상호적 읽기에서 (1), (2), (4), (5)는 상향식 읽기에 해당하고, (3)을 비롯한 (6), (7), (8), (9) 부분은 하향식 읽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뎀포드와 데이(Bamford & Day 1988)에 따르면, 다독은 상호적 읽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에스키와 그라베(Eskey & Grabe 1988)는 하향식 읽기와 상향식 읽기는 결국, 다독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 투구룰(Tuğrul 2015)은 언어학습에 있어서, 하향식 접근법인 다독이 유창성(fluency)을 강조한 반면, 상향식 접근법인 정독은 정확성(accuracy)을 강조하고 있기에, 실제로 제 2언어 읽기학습에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독과 정독이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에스킬드슨(Askildson 2008)은 제 2 언어 학습자가 단어 인식과 읽기 이해를 잘 하기 위하여, 하

향식 읽기인 다독과 소리를 내어 읽기(read aloud)를 할 때, 목표어에 대한 소리 인식이 좋아져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한 언어습득의 통합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엘투르키와 하몬(Elturki & Harmon 2020)은 정독과 다독의 통합적 효과를 통한 균형적 읽기(balanced reading)를 제 2언어 읽기과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3. 다독의 통합적 읽기효과와 연구사례 분석

학습자가 스스로 읽는 읽기방법인 다독은 우리나라에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영어 읽기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언어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나 실험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다독을 통한 읽기교육은, 그 동안의 정독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이고 분석적인 읽기 방법에서 벗어나, 의미중심의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는 창의적 읽기학습에 크게 기여 하였다. 다독은 언어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제 2언어 읽기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의 주요 연구 사례들을 통한 영어교육적 의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의 태도에 다독이 주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에서, 야마쉬타(Yamashita 2013)는 일본의 6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독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편안함(comfort), 근심(anxiety), 지적 가치(intellectual value), 실용적 가치(practical value), 언어적 가치(linguistic value)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중 ‘언어적 가치’ 영역을 제외한 실험에서, ‘편안함’ 영역과 ‘지적 가치’ 영역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근심’ 영역은 상당히 없어졌으나, ‘실용적 가치’ 영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다독이 독자의 심리적인 부분과 정보습득 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며, 학습자의 읽기 태도(attitude)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석(Suk 2017)은 한국 대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다독이 영어 읽기 학습에서,

읽기이해, 읽기속도, 어휘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제집단은 88명으로, 1주에 100분씩 정독을 통해 강의를 하였고, 다독의 비중을 30% 추가하여 강의한 실험집단은 83명으로, 70% 정독수업, 30% 다독수업의 혼합형 수업을 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독을 가미한 수업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 실험은 다독을 가미한 읽기교육이 정독만을 하는 읽기교육보다 언어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키린(Kirin 2010)은 다독이 쓰기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15주 동안, 태국의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단순화된 읽기 책(simplified reading book)을 읽고, 5주마다 에세이 쓰기능력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하위집단의 학습자들의 에세이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의 학습자 읽기전략과 기술이 부족하여, 읽기에서 습득한 내용을 쓰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실험은 읽기의 종합적인 전략과 배경지식 등에 있어서,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해 부족한 결과, 쓰기에 있어서도, 이해기술(receptive skill)인 읽기를 통한 언어습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쓰기라는 표현기술(productive skill)에도 부족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독이 읽기와 쓰기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도 있다. 파크(Park 2016, 287-95)는 다독을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험으로 보여준다. 문법과 전통적인 문장해석 중심의 방법을 통한 에세이 쓰기와 다독을 통한 에세이 쓰기의 비교 실험에서, 1학기 후에 나타난 결과는 쓰기의 콘텐츠, 문장구성, 어휘, 언어사용, 문법기능 등에서 다독을 통한 에세이 쓰기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증명하였다. 특히, 다독에 있어서 학술적 목적의 내용이 에세이 쓰기에 보다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내용중심의 다독이 언어습득 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며, 읽기를 통한 습득 내용의 인지적 작용이 읽기와 쓰기의 통합작용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다독의 통합적 학습효과를 연구한 사례들을 알아본다. 첸(Chen 2018, p.

405-414)은 다독이 과제중심 학습(task- based learning)을 통하여, 통합적 학습에 크게 기여함을 논의하였다. 재미있는 읽기를 통한 ‘이해가능한 입력이 과제-중심 학습을 통한 표현적 결과(productive output)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 단계적 읽기를 통한 다독이 언어학습의 향상은 물론, 학생 인터뷰나 관찰, 저널쓰기 등의 과업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읽기 향상도 배가 된다고 하였다. 이 실험은 다독을 통한 참여학습(participatory learning)과 협력학습(cooperative learning)이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 언어학습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독과 정독의 통합적 효과를 연구한 사례들도 있다. 메라니와 아피트리(Melani & yafitri 2020)는 정독과 다독의 통합적 읽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 읽기의 통합적 전략이 어휘력 향상, 읽기시간 증대, 텍스트 난이도 수준 제고, 전반적 언어능력 향상, 읽기전략 향상 등을 가져 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실험은 정독과 다독의 통합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로, 읽기능력 향상에 2가지 읽기방법의 통합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독과 다독의 통합적 효과 중에서, 다독의 메타인지 능력의 향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오와 바브(Rao & Babu 2016)는 다독이 읽기전략에 있어서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읽기 예측기술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텍스트 이해의 플랫폼이 된다고 하며, 텍스트 상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해독(decoding)하고, 해석(interpreting)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하여, 다독은 읽기전략에 있어서도, 메타인지 능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4. 토론 및 제언

다독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 접근법은 단어 수준의 분석보다는 글의 맥락과 이해를 강조하는 교수법이다. 이 접근법은 개별적 단어로 출발하는 전통적인 상향식 접근법

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독은 특히, 모든 단어나 문장을 끊어, 분석하기 보다는 즐거움과 전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는 읽기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독을 통한 하향식 접근법은 지금까지의 연구사례들을 중심으로 10가지 특징으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하향식 접근법의 목표는 이해력이다. 학습자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글을 읽을 경우에도, 의미와 이해를 목적으로 읽기를 하도록 한다. 그렇게 읽는 도중에,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어휘와 언어기술을 습득한다.

둘째, 다독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읽기를 한다는데 있다. 학습자는 재미있고, 적절한 수준의 읽기자료를 골라, 읽기의 경험을 즐겁게 만든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학습자는 더 많은 양의 읽기를 하도록 동기가 부여되며, 그 결과 그들의 언어기술이 향상된다.

셋째, 하향식 접근법은 실제세계(real world)에서 사용되는 글의 맥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넷째, 다독은 이해력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습자가 언어학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 학습자는 다독을 하는 동안, 사전 사용을 가급적 안하고, 문법규칙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학습의 경험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다독은 학습자의 읽기속도와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독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전반적 언어의 유창성을 가져오는 다양한 문장구조와 관용적 표현들을 접하게 된다.

여섯째, 다독은 텍스트의 맥락에 맞는 다양한 어휘에 노출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올바른 어휘습득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어휘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고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어휘(sight vocabulary)들을 점진적으로 습득하게 만든다. 일곱째, 다독은 간접적으로 듣기 및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쓰여진 형태의 자연어 패턴과 표현을 만나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말하기 및 듣기 활동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덟째, 다독은 학습자들을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소개함으로써, 배경지식을 구축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지식은 더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아홉째, 다독을 통한 하향식 접근법은 자기주도 학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자신에게 관계있는 읽기 자료를 선택하고 자신의 읽기과정을 스스로 점검한다. 이것은 읽기의 자동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끝으로, 열번째는 하향식 접근법의 평가는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평가보다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이해와 언어습득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이해 퀴즈, 토론 및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다독을 통한 하향식 접근법은 이해력, 맥락 및 즐거움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다독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실제성 텍스트(authentic text)에 최대한 노출됨으로써, 언어기술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기의 즐거움이 언어습득에 강력한 동기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국어로서의 영어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인재양성과 리더십의 제고에 있어서, 언어능력과 함께,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언어습득의 보편성 원리에 맞추어, 학습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이후에 제 2언어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언어형태(form)와 내용(content)을 동시에 통합시키는 다독을 통한 영어학습이 교육현장에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영어학습자들은 시험을 목적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자 > 단어. > 구 > 문장 > 단락 >

스토리과 같은 상향식 읽기전략을 통하여, 분석적이고 정확한 언어해석과 문제풀이에 치중한 언어습관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학습자들이 높은 점수만 얻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언어의 본질인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제고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끝나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개별적인 학습을 소모적으로 다시 반복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언어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모국어의 습득원리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습득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문헌분석과 연구자료의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해 왔던 다독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모국어습득과 마찬가지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한 의미중심의 읽기방법을 통하여, 언어기술까지 통합해 가는 읽기 연구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고 제언함으로써, 인지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고려한 자발적 다독을 영어교육가들이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용문헌

- 마송희. 「유아의 음운인식능력과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 모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1권 4호, 2013, 183-206쪽.
- 배은실·맹은경. 「중학교 학습자들의 모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 능력 사이의 관계 분석」. 『현대영어교육』, 13권 4호, 2012, 293-313쪽.
- 조증열·이강은. 「초등학생의 한국어 음운처리 기술이 영어 읽기와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권 4호, 2004, 145-57쪽.
- Abbott, M. “An introspective study of Arabic and Mandarin-speakers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TESL Canada Journal/Revue TESL Du Canada*, vol. 28, no. 1, 2010, pp. 14-40.
- Anderson, N. J. *Exploring Second Language Reading: Issues and Strategies*. Heinle & Heinle, 1999.
- Askildson, L. R. *Phonological Bootstrapping in Word Recognition & Whole Language Reading: A Composite Pedagogy for L2 Reading Development via Concurrent Reading-listening Protocols and the Extensive Reading Approach*. The University of Arizona, 2008.
- Bamford, J. and Day, R. “Teaching read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 18, 1998, pp. 124-41.
- Brown, H. D. *Teaching by Principles*. Pearson Education, 2007.
- Carrell, P. L. Introduction.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edited by Carrell, J. Devine, and E. Eskey, Cambridge UP, 1988, pp. 1-7.
- Carrell, P. L. “Some Causes of Text-boundedness and Schema Interference in ESL Reading.”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edited by Carrell, J. Devine, and E. Eskey, Cambridge UP, 1988, pp. 101-13.
- Carrell, P. L., Devine, J., and Eskey, D. E., editors.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Cambridge UP, 1988.

- Chanthap, N., and Wasanasomsithi, P.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a Blended Learning and Extensive Reading Instructional Model on Thai EFL Undergraduate Students' Learner Autonomy." *LEARN Journal: Language Education and Acquisition Research Network*, vol. 12, no.2, 2019, pp. 76-96.
- Chen, I. C. "Incorporating Task-based Learning in an Extensive Reading Programme". *ELT Journal*, vol. 72, no. 4, 2018, pp. 405-14.
- Cummins, J.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9, no. 2, 1979, pp. 222-51.
- Da Fontoura, H.A., and Siegel, L.S. "Reading, Syntactic, and Working Memory Skills of Bilingual Portuguese-English Canadian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vol. 7, no. 1, 1995, pp. 139-53.
- Day, R. R., et al.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RELC Journal*, vol. 29, no. 2, 1998, pp. 187-91.
- Elturki, E., and Harmon, E. "Systematic Integration of Extensive Reading in the Curriculum: Strategies and Resources." *TESOL Journal*, vol. 11, no. 3, 2020, e00517.
- Eskey, D. E. and Grabe, W. "Interactive Models for Second Language Reading: Perspectives on Instruction."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edited by Carrell, J. Devine, & E. Eskey, Cambridge UP, 1988, pp.223-38.
- Frehan, P. "Beyond the Sentence: Finding a Balance between Bottom-up and Top-down Reading Approaches." *The Language Teacher Online*, vol. 23, no. 1, 1999, <http://langue.hyper.chubu.ac.jp/jalt/pub/t1t/99/jan/frehan.html>. Accessed July 12, 2001.

- Ganschow, L., and Sparks, R. "Effects of Direct Instruction in Spanish Phonology on the Native-language Skills and Foreign-language Aptitude of At-risk Foreign-language Learne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28, no. 2, 1995, pp. 107-20.
- Grabe, W. "Current Developments in Second Language Reading Research." *TESOL Quarterly*, vol. 25, no. 3, 1991, pp. 375-406.
- _____. "Research on Teaching Read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 24, 2004, pp. 44-69.
- Melani, M., and Syafitri, L. "Investigating Students' Need in Developing Integrated Model of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Instruction at English Education Study Program of Islamic State Institute of Bukittinggi."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1471, no. 1, 2020, 012028.
- Kirin, W. "Effects of Extensive Reading on Students' Writing Ability in an EFL Class." *Journal of Asia TEFL*, vol. 7, no. 1, 2010, pp. 285-308.
- Park, J.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through Extensive Reading". *Elt Journal*, vol. 70, no. 3, 2016, pp. 287-95.
- Rao, C. S., and Babu, K. S. "Importance of Extensive Reading in Language Learning." *Language in India*, vol. 16, no. 2, 2016.
- Sparks, R., Ganschow, L., and Pohlman, J. "Linguistic Coding Deficits in Foreign Language Learners". *Annals of Dyslexia*, vol. 39, no. 1, 1989, pp. 177-95.
- Sparks, R. L., et al. "Native Language Predictors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and Foreign Language Aptitude." *Annals of Dyslexia*, vol. 56, no. 1, 2006, pp. 129-60.
- Suk, N. "The Effects of Extensive Reading on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Rate, and Vocabulary Acquisit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52, no. 1, 2017, pp. 73-89.

- Swanson, H. L., Saez, L., and Gerber, M. "Growth in Literacy and Cognition in Bilingual Children at Risk or Not at Risk for Reading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8, no. 2, 2006, pp. 247-64.
- Mart, Cagri Tuğrul. "Combining Extensive and Intensive Reading to Reinforce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and Instructional Studies*, vol. 5, no. 4, 2015.
- Van Der Leij, Aryan, and Morfidi, E. "Core Deficits and Variable Differences in Dutch Poor Readers Learning Engl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39, no. 1, 2006, pp. 74-90.
- Yamashita, J. "Effects of Extensive Reading on Reading Attitudes in a Foreign Languag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25, no. 2, 2013, pp. 248-63.

Abstract

An Integrative Strategy for Extensive Reading Using a Top-down Approach

Kyu-Cheol Shin
Far East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grative strategy with a focus on a top-down approach to extensive reading and review the research, suggesting its pedagogic implications for the classroom. Based on research data on extensive reading, the integration strategy that EFL learners use to read is discussed as to whether it effectively promotes the cognitive aspect of reading abilities and learner autonomy in EFL learner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 top-down approach and bottom-up approach for voluntary extensive reading and suggests significant insights for foreign language reading instruction. In summary, the top-down approach with a focus on interactive extensive reading shows that the learner-centered extensive reading emphasizes meaning-centered comprehension, together with a positive attitude and enjoyment of reading. By promoting extensive reading, educators aim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earners can naturally develop their foreign language skills through exposure to authentic texts.

Key words: Extensive reading, Cognitive aspect, Voluntary extensive reading, Bottom-up approach, Top-down approach

논문접수일: 2024.01.24

심사완료일: 2024.02.18

게재확정일: 2024.02.23

이름: 신규철

소속: 극동대학교 미래교양대학 교수

이메일: 811shin@kdu.ac.kr